

꽃대를 향하여

빌 3:10-16

다사다난했던 2006년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 해의 종착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이 웬지 모르게 섭섭하고 아쉬움만 남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정지시키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인간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의 삶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주어진 꽃대를 향해 부지런히 달린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12 절) 주어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1.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0-11 절에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이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가족들의 불행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유대교의 열심을 자랑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 했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가 바울을 엄습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런 삶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란 주님이 주시는 힘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평온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자를 말합니다. 고난과 아픔의 삶을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살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쫓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쫓대를 향해 우리가 얼마만큼 달려왔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50:15에 “불행이 닥치거든 나를 부르거라. 나 너희를 건지리라. 하여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러 오셨을 때에 너희도 주님을 만나러 나오너라! 주께서 가까이 와 계실 때에 너희도 주님을 부르며 찾아라.”(사 55:6)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쫓대를 향해 달려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 과거보다 미래를 향해 부지런히 달리는 것입니다. 쫓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과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거보다 현재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왕년에 국민학교에서 반장하고 1 등하면 뭐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면 과거의 화려한 이력은 무용지물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년에 잘 믿었다고 합니다.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 여선교회/남선교회 임원도 했다고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우 교회만 나오거나 아예 교회도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의 신앙의 화려함은 지금까지 이어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은 현재의 신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의 신앙은 미래의 화려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과거의 신앙이 화려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방에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병자들에게 안수하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의 신앙에 얽매이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아직 이루지 못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12 절) 바울의 마음은 오직 앞에만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이나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자신이 이룬 업적만 바라보는 과거형의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이루지 못한 사명을 바라보며 남은 생애를 다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과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이루지 못한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간은 곧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다가면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됩니다. 2007 년이라는 희망찬 한 해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서 2007 년에는 어떤 복을 주실 지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교회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동역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자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지나온 1 년 동안의 아쉬움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합니까? 지나온 날의 화려함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싶습니까?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달려온 길이 아니라 끝인지점까지 가야할 길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